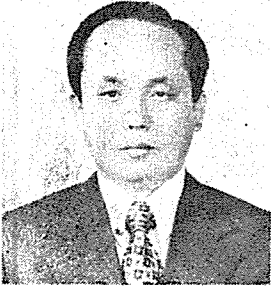


신년사



희망찬 1978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신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 어느해 보다도 다사다난했고 국내외적으로 큼직한 일들로 자랑스러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과계로서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대과없이 한해를 마무리 짓게된 것을 감사드리며, 알찬 결실의 한해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전 치과인의 학술지로서 본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학술 임상 등 회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의 정보를 제공코저 참신한 매개체 구실을 하여왔고 또한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의지와 신념으로 3천여 치과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다 바르고 새로운 지식과 임상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명실공히 그 전과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왔습니다.

새해에는 오로지 회원여러분의 여망에 부응코저 치과의사를 위한 지식 전달과 임상정보의 전달을 위해 항상 회원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참신한 사고로서 치과계의 전진을 위해 정열을 쏟고자 합니다만 바라건대 비판의 일인자 보다는 협조하는 일인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잘못을 탓하고 불평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만 이를 행동으로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세분화 되어가는 차제에 우리 치과계도 선진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동체적 사명감으로 진력하고자 금년에 외국의 새로운 원리와 최신 임상정보에 좀더 힘을 기울여 기획, 편집 등 전반에 걸쳐 그 내용에 있어 혁신을 가져와 다양하게 꾸미어 시원스러운 넓은 시야에서 알찬 정론을 펴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코 어느 특정 치과인만의 학술지가 아닌 우리 모든 치과인의 학술지로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회원 여러분께서는 꾸준히 지지하시고 가치없는 비판과 격려와 그리고 지도편달을 바라맞이 않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해에 국내외적으로 쌓아 올린 가슴뿌듯한 업적이 우리 치과계에도 이루어 지기를 바라맞이 않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장 김 규 식